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대하여

-한글의 音節末障礙音 가나표기를 중심으로-

李京哲* · 金大暎**

(e-mail: kanzi22@empal.com · kimdy83@naver.com)

목 차

1. 서론
 2. 최적성이론과 일본어의 외래어 차용
 - 2.1. 최적성이론의 기본원리
 - 2.2. 일본에서의 차용어의 音節化
 3. 한글의 音節末障礙音 가나표기
 - 3.1. m, n의 실현
 - 3.2. p, t, k의 실현
 4. 결론
- 참고문헌
-
-

1. 서론

1987년 11월 17일 문교부에 의해 고시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문제 제기와 개정요구로 인하여 2002년에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실제 용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메뉴판 표기 등의 서로 다른 표기가 혼용되고 있어, 한글의 일본어 표기의 기준이 되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오용례 현황, 그리고 한국어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음운론적 제시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와 개정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본어에서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부교수 일본어음운론.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박사과정 일본어음운론.

차용어가 어떠한 제약에 의하여 표기를 가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관광계열의 팸플릿, 메뉴, 지도 등에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등한시한 많은 오용과 혼용을 보이게 된 것도 바로 일본어모어 화자에게 친숙하지 못한 표기법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를 기존의 어휘 중심의 분석이 아닌, 표면성 중심(surface-oriented)의 이론인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과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에 따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먼저 일본어가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음성실현제약을 설정한다. 그리고 특히 오용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音節末障礙音, 즉 받침에 대해서 실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기된 자료인 수도권 지하철역명을 일본어 차용어의 제약에 대응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2. 최적성이론과 일본어의 외래어 차용

2.1. 최적성이론의 기본원리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1993)가 제안한 최적성이론은 입력형(input)인 기저형을 설정하여 출력형(output)을 도출할 시에 기존의 생성음운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형적($R_1, R_2, R_3, R_4, R_5...$)인 과정을 무시한다. 대신 무수히 많은 출력형의 후보들(candidates)을 동일선상에 두고 평가자(evaluator)가 설정된 제약(constraint)에서 최소한의 위배가 일어나는 후보를 최적형으로 선택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법의 구성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적성-기반 문법(Optimality-based Grammar)

Generator(in_i) \rightarrow {cand₁, cand₂, cand₃.....}

Evaluator({cand₁, cand₂, cand₃.....}) \rightarrow cand_k (the output_{real})

생성자(Gen)는 어떠한 입력형이 주어졌을 때, 무수히 많은 출력형 후보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생성되는 출력형 후보들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는다. 이 출력형 후보들은 평가자(Eval)에 의해 평가되어 최적형으로 선택되는데,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약'이다. 제약은 개별언어에 따른 특수한 제약이 아닌 모든 언어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보편 제약을 따르는데, 복수의 제약들은 상호 등급(ranking)이 존재하며 위배가 가능하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의 관계에서 올바른 최적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McCarthy, John & Prince(1993:1)는 다음과 같은 최적성이론의 기본 원리를 가정했다.

(2) 최적성이론의 원리¹⁾

- a. 위반 가능성(Violability) : 제약은 위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반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 b. 등급성(Ranking) : 제약은 언어 개별적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최소 위반(또는 최대 충족)의 개념이 등급의 정의로 쓰인다.
- c. 포괄성(Inclusiveness) : 제약의 등급은 구조적 정형성(structural well-formedness)을 보편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다수의 분석 후보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어떠한 특정 제약에 연관한 특수 규칙이나 보수 전략(repair strategy)은 없다.
- d. 평행성(Parallelism) : 제약등급의 최대 충족은 제약들 사이의 전체 위계도와 모든 후보의 집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순차적인 도출은 없다.

(2a)는 최적성이론의 가장 큰 특징인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이론에서 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적성이론에서의 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위반은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최적형은 항상 상위의 제약을 최소로 위반한 후보가 선택된다. (2b)는 언어의 차이가 보편 제약들의 등급 차이임을 보여준다. 이 등급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상위의 제약을 위반한 후보가 먼저 최적형에서 탈락되고 하위의 제약을 위반한 후보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2c)는 모든 후보들을 제약의 등급에 의해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1) Principles of Optimality Theory

a. Violability

Constraints are violable; but violation is minimal.

b. Ranking

Constraints are ranked on a language-particular basis; the notion of minimal violation (or best-satisfaction) is defined in terms of this ranking.

c. Inclusiveness

The constraint hierarchy evaluates a set of candidate analyses that are admitted by very general considerations of structural well-formedness; there are no specific rules or repair strategies with specific structural descriptions or structural changes or with connections to specific constraints.

d. Parallelism

Best-satisfaction of the constraint hierarchy is computed over the whole hierarchy and the whole candidate set; there is no serial derivation.

의미한다. (2d)는 전체 등급과 전체 후보를 평행으로 놓고 중간 단계의 규칙 없이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야 함을 나타낸다.

최적성이론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제약을 인정하는데 이는 유표성 제약(markedness constraint)과 충실성 제약(faithfulness constraint)이다. 유표성 제약들은 주로 音節構造에 대한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특성들을 나타낸다. 먼저 音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音節核이며,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어는 母音이 音節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 유표성 제약

- a. Peak : 모든 音節은 音節核을 가진다.
- b. Onset : 音節은 子音으로 시작한다.
- c. NoCoda : 音節은 子音으로 끝날 수 없다..
- d. *Complex : 音節은 音節初와 音節末에 두 개 이상의 分節音의 연속을 가질 수 없다.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가장 무표적인 음절유형을 CV구조로 보기 때문에 Onset, NoCoda와 같은 제약들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Complex는 音節初 및 音節末에는 오직 하나의 子音만이 오는 것이 가장 무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충실성 제약

- a. Parse : 입력형의 分節音은 반드시 音節 구조에 배치되어야 한다.
- b. Fill : 音節 내의 위치들은 반드시 입력형의 分節音으로 채워져야 한다.

한편 McCarthy, John & Prince(1995)는 최적성이론의 Gen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을 제안하였다. 대응이론은 최적성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된 것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최적성이론과 같으며, 앞서 살펴본 최적성이론의 제약 중 Parse와 Fill로 나타나는 충실성 제약을 그 근원으로 한다.

최적성이론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후보들이 기저의 모습을 바꾸거나 기저에 나타난 것을 탈락시킬 수 없다는 것이 Gen의 중요한 원칙이었으나, 이는 동화나 이화처럼 分節音의 모습이 바뀌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억제 원칙을 포기하고 입력부와 출력부를 비교하여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대응 제약의 원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5) 대응이론에서의 주요 제약

- a. Max-IO : 입력형의 모든 分節音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가져야 한다.
- b. Dep-IO : 출력형의 모든 分節音은 입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Max-IO는 分節音의 탈락을 금지하는 제약이다. 이는 초기의 최적성이론에서 Parse 제약으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대응이론이 대두됨에 따라 Max-IO라는 제약으로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 Dep-IO는 Fill과 대치되는 제약이다. 출력형에 나타나는 分節音이 입력형의 그것과 일대일 대응을 보이면 이 제약은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일본에서의 차용어의 音節化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가 일본어에서의 차용어에 대한 음성실현제약과 어떠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일본어의 음성실현 제약을 설정하고자 한다.

CV구조인 일본어에서 차용어의 音節末障碍音은 母音插入에 의한 音節初 실현 혹은 특수음소로의 치환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母音插入에 의한 開音節化 현상은 CV언어가 가진 제약인 Peak와 *Complex를 지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Peak와 *Complex는 자연히 가장 상위의 등급에 위치하게 된다.

(6) /mask/ ‘mask’

| 예상출력형 | Peak | *Complex | Max-IO | Dep-IO |
|----------------|------|----------|--------|--------|
| a. mask. | | *! | | |
| b. ma.s.ku. | *! | | | * |
| ☞ c. ma.su.ku. | | | | ** |
| d. ma.<>.ku. | | | *! | * |

(6a)는 音節末에 子音群을 가질 수 없다는 CV언어의 보편적 제약인 *Complex를 어겼기에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6b)는 音節核을 가지지 않아 Peak를 위반하였고, (6c)는 母音을 두 번 삽입하여 Dep-IO를 2회 위반하였으나, 다른 후보에 비하여 상위제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6d)는 分節音이 탈락되어 /maku/의 표기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mask’의 표기는 /masuku/이므로 Max-IO는 Dep-IO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제약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母音을 가지지 않는 音節과 子音群은 일본어 표기로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Peak와 *Complex는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상호간의 등급이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어에서의 차용어에 대한 음성실현 제약등

급은 우선 ‘Peak, *Complex ≫ Max-IO ≫ Dep-IO’로 설정할 수 있겠다.

일본어는 CV언어로 音節末障礙音を 가질 수 없다. 하지만 促音과 撥音이라는 특수음소의 존재로 제한적이거나 音節末을 표기할 수 있다. 후행하는 音節初 障礙音의 자질에 의하여 /p, t, k, s/는 促音으로, /m, n, ŋ/은 撥音으로 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를 제한적 CVC언어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하고자 한다.

- (7) a. Coda-condition : 音節末에 위치할 수 있는 障礙音은 후행 音節初障礙音의 자질에 의하여 활성화된 특수음소 /p, t, k, s/와 /m, n, ŋ/의 音價만이 올 수 있다.
- b. Max_(coda) : 입력형에서 音節末에 위치한 分節音은 출력형 대응소 역시 音節末에 위치해야 한다.

(7a)는 말음제약으로 音節末에 올 수 있는 音價를 제한하는 제약이다. 일반적으로 CV언어인 일본어에서는 말음불가제약인 NoCoda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促音과 撥音의 특수음소가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音價로 발현되며, 또한 근원어의 음성에 가까운 音價를 취하여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NoCoda보다는 Coda-condition을 설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7b)는 삭제금지제약으로 (5a)의 위치적제약이다.

(8) /kik/ ‘kick’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ki.k. | *! | | | * | | |
| b. ki.k <u>u</u> . | | | | | *! | * |
| ☞ c. kik.k <u>u</u> . | | | | | | ** |
| d. kik. | | | *! | | | |

(8a)는 Peak를 위반하여 최적형에서 탈락하였으며, (8b)는 母音を 1회 삽입하여 (8c)보다 Dep-IO를 적게 위반하였지만, 일본어에서 ‘kick’의 표기는 促音が 삽입된 ‘キック’이다. 즉 語尾音節末에서 /k/는 그 위치를 고수하려는 성질인 Max_(coda)제약을 가지며, 이 제약은 Dep-IO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8d)는 分節音의 추가 및 삭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어의 語尾音節末 /k/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제약인 Coda-condition을 위반하여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9) /impakt/ ‘impact’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im.pak.to. | | | *! | | | * |
| b. i.mu.pa.ku.to. | | | | | **! | *** |
| ☞ c. im.pa.ku.to. | | | | | * | ** |
| d. im.pat.to | | | | *! | * | ** |

(9b)는 母音插入이 3회 이루어져 Dep-IO를 위반하였고, 母音插入을 통한 開音節化에 의하여 Max_(coda)가 2번 위반되어 후보에서 탈락하였다. (9c)는 입력형의 두 번째 音節末障害音인 [k]가 開音節化되어 音節初로 넘어오면서 Max_(coda)를 위반하고 母音插入으로 인하여 2회 Dep-IO를 어겼지만, 상위 제약의 위반이 가장 적었으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9d)는 (9c)와 위반된 제약의 수가 거의 비슷하였으나, 2音節의 音節末障害音을 促音化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입력형의 子音を 삭제·삽입하여 Dep-IO의 상위제약인 Max-IO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탈락되었다. 그리고 (9a)는 語尾音節末만을 開音節化하여 타 후보들에 비하여 제약위반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音節末에서 [k]의 音價를 가지기 위해서는 /k/가 후속하는 音節初 障害音에 위치해야하기 때문에 /t/를 가진 (9a)는 Coda-condition을 1번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 위반으로 인하여 최적형에 탈락하였기에 Coda-condition은 Max보다 상위에 위치한 제약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일본어의 차용어에 대한 음성실현재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0) 일본어에서 외국어 차용시의 음성실현재약 등급

Peak,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Max_(coda) ≫ Dep-IO²⁾

3. 한글의 音節末障害音 가나표기

3.1. m, n의 실현³⁾

이 장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역명에 나타나는 音節末障害音 /m, n, ŋ/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CV구조인 일본어에서 차용어의 音節末障害音은 母音插入에 의한 開音節化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

2) 이 제약의 등급은 일본어에서 외국어를 차용할 때에 작용하는 최소한의 제약들만을 언급한 것이다. 한글의 가나 문자 표기에 사용되지 않는 長音과,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子音, 母音에 관한 제약은 추후 추가될 여지를 남겨두도록 한다.

3) /ŋ/은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 撥音으로 표기되는 관계로 본 장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약 등급의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Peak와 *Ccomplex에 의한 현상이다.

- (11) a. 남성[namsəŋ] ナムソン 금호[kimho] クムホ
 b. 김포공항[kimp^hoŋhaŋ] キムポコンハン
 남부터미널[nambut^həminəl] ナムブターミナル

(11)은 音節末障礙音 /m/이 開音節化하여 o[CV의 형태로 표기되는 용례이다. 조사대상에서 /m/은 전체 34곳이 모두 開音節化된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音節末障礙音 /m/은 환경에 따라 o[CV, 혹은 撥音으로 그 쓰임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 (12) a. scrum[skrʌm] スクラム game[geim] ゲーム
 b. jumbo[dʒʌmbʊ] ジャンボ champion[tʃæmpiən] チャンピオン

(12a)는 語尾音節末障礙音 /m/에 무표적 母音인 /ʌ/를 삽입하여 開音節化한 용례이다. 語尾音節末에서는 후속하는 障礙音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Coda-condition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語尾音節末에 위치한 /m/은 반드시 開音節化된다고 할 수 있다. (12b)에서는 語中音節末障礙音 [m]이 撥音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語中에 위치한 撥音은 [+anterior][-coronal]자질을 가진 音節初 障礙音 /p, b, f, v/에 의하여 /m/의 音價를 가진다. 즉 (12b)의 용례는 音節末障礙音[m]이 후행하는 音節初 障礙音이 가진 [+ant][-cor]자질에 의하여 開音節化되지 않은 Coda-condition과 Max_(coda)를 충실히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다.

(13) /cjampion/ ‘champion’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cja.mu.pi.on. | | | | | *! | * |
| ☞ b. cjam.pi.on. | | | | | | |

(13a)는 語中音節末 /m/에 母音插入을 한 후보로서, Max_(coda)와 Dep-IO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탈락하였다. (13b)는 /p/가 후속하여 Coda-condition을 위반하지 않고 音節末에 위치할 수 있어 어떤 제약도 위반하지 않고 최적형으로 되었다.

이렇듯 語中音節末에 위치한 /m/은 환경에 따라 開音節化, 혹은 撥音 표기

로 나뉘게 된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도 역시 이러한 부분은 명기되어 있지만⁴⁾, 그 쓰임은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11b)의 ‘김포공항’과 ‘남부터미널’은 音節末障礙音 /m/이 開音節化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후행하는 音節初障礙音은 /p^h/와 /b/로 일본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보았을 때 撥音이 촉발되는 환경이다. 위 두 용례를 일본어의 차용어 실현제약을 적용시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kimpo/ ‘김포’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ki.mu.po. | | | | | *! | * |
| ☞ b. kim.po. | | | | | | |
| c. ki.m.po. | *! | | | | | |
| d. kip.po. | | | | *! | | * |

(14a)는 母音插入으로 인하여 [m]이 音節初로 이동되었다. 따라서 Max_(coda)와 Dep-IO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14c)는 Peak를 위반하였고, (14d)는 音節末 [m]을 후속하는 音節初障礙音인 [p]로 치환하였다. 그로 인하여 促音が 촉발되는 환경이 유발되어 Coda-condition의 위반은 회피하였으나 하위 제약인 Max-IO와 Dep-IO를 위반하여 후보에서 탈락하였다. (14b)는 제약의 위반사항이 전혀 없어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15) /nambu/ ‘남부’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na.mu.bu. | | | | | *! | * |
| ☞ b. nam.bu. | | | | | | |

4)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3항.

(붙임2) ‘ㄱ, ㄲ, ㅋ’과 ‘ㄴ, ㄷ, ㄹ’ 받침은 다음의 경우 각각 ‘っ’와 ‘ん’으로 적는다.

(1) ‘ㄱ, ㄲ, ㅋ’ 받침 아래에 ‘ㄱ, ㄲ, ㅋ’ 초성이 오는 경우

역곡 : ヨッコク 옥구 : オック

(2) ‘ㄴ’ 받침 아래에 ‘ㄴ, ㄷ, ㅁ, ㅂ, ㅅ’ 초성이 오는 경우

남문 : ナンムン 김포 : キンポ

(3) ‘ㄷ, ㄹ’ 받침 아래에 ‘ㄷ, ㅁ, ㅂ, ㅅ’ 초성이 오는 경우

압박 : アッパク 앞부리 : アップリ

(15a) 역시 현행 표기법에 의한 예상 출력형이다. ‘김포’와 마찬가지로 母音 挿入으로 인한 제약의 위배로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15b)는 音節末 [m]을 撥音으로 처리함으로써 제약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아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대상이 된 수도권 지하철 역명 표기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의거한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音節末障礙音 /m/은 위와 같은 오용을 보이고 있다. 撥音으로 표기되는 다른 音節末障礙音 /n, ŋ/ 보다 상대적으로 撥音이 유발되는 환경에 제약이 많은 /m/은 開音節化되어 표기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語中音節末障礙音 /m/의 가나 문자 표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16) a. 굽은다리[kubindari] クブンダリ 관악[kwanaŋ] クァナク
 b. 신용산[ʃinyoŋsan] シンヨン산
 성신여대[shəŋʃinyəde] ソンシンヨ데

音節末障礙音 /n/은 총 141곳에서 출현하였다. 語中에서는 76곳 중 72곳이 撥音으로 표기되었으며, 나머지 4곳은 후속 母音과 결합하여 CV형태를 이루었다. 그리고 語尾에서는 65곳 모두 撥音으로 표기되었다.

한국어의 音節末障礙音은 母音이 후속하는 환경에서 母音과 결합하여 音節 初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0)에서 언급한 제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17) /anam/ ‘anam’

| 예상 출력형 | Peak | *Complex | Coda-condition | Max-IO | Max _(coda) | Dep-IO |
|----------------|------|----------|----------------|--------|-----------------------|--------|
| a. a.na.mwu. | | | | | *! | * |
| ☞ b. an.a.mwu. | | | | | | * |

(17)은 지하철 역명인 ‘안암’을 기존의 제약에 대입하여 최적형을 도출한 표이다. (17a)는 Max_(coda)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고 (17b)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音節末子音이 후속 母音과 결합한 音價를 가지는 근원어인 한국어의 특성상 실제로 기대되는 최적형은 (17a)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최적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C[V : 근원어의 音節末障礙音은 母音이 후속할 경우 分節音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다.

(18)에서 제시된 제약의 등급은 Max_(coda)의 위반으로 인한 잘못된 최적형이 선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Max_(coda)보다 상위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제약을 준수하기 위한 分節音 삭제 역시 회피해야 하므로 Max-IO는 *C[V보다 하위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설정된 제약등급에 의한 최적형 도출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anam/ ‘anam’

| 예상 출력형 | Coda-condition | *C[V | Max-IO | Max _(coda) | Dep-IO |
|---------------|----------------|------|--------|-----------------------|--------|
| ☞ a. a.na.mu. | | | | * | * |
| b. an.a.mu. | | *! | | | * |
| c. a.a.mu. | | | *! | | * |

이전에 최적형으로 선택된 (19b)는 상위제약인 *C[V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탈락하였다. 그리고 (19c)는 *C[V를 회피하기 위하여 音節末分節音을 삭제하였지만 Max-IO를 위반하게 되어, 결국 Max_(coda)를 1회 위반함에 그친 (19a)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16b)는 音節末에 위치한 /n/이 *C[V를 무시하고 후속 母音과 결합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 복합명사의 경우 실제 撥音과는 관계없이 후행하는 명사의 語頭 표기는 변별성을 강조하여 _\$가 아닌 #로 간주하는 경향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명사+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인 ‘신용산’의 경우 ‘신 + 용산’으로 ‘신’의 音節末 /n/은 후행하는 母音과 결합하지 않고 不破되어 撥音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이나 ‘서울역’과 같이 의미에 큰 구별을 가지는 조합이 아닌 경우에서까지 변별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외를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대다수가 같은 기준, 즉 음성에 가까운 표기를 가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k, t, p의 실현

音節末障礙音 /k, t, p/는 促音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는 促音表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⁵⁾

5)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 2장, 3장 참조.

- (20) a. 받침 ‘ㄷ·ㅌ·ㅊ·ㅌ·ㅍ·ㅍ·ㅍ·ㅎ’의 대표음은 /t/이며, 축음으로 표기된다.
 b. 모음 다음에 오는 ‘ㅍ’은 ‘ㅍ’행 앞에 ‘ㅍ(축음)’를 덧붙여 적는다.
 c. ‘ㄱ·ㄱ·ㅋ’과 ‘ㄷ·ㅌ·ㅌ’ 받침은 다음의 경우 각각 ‘ㅍ’와 ‘ㅍ’으로 적는다.
 1) ‘ㄱ·ㄱ·ㅋ’ 받침 아래에 ‘ㄱ·ㄱ·ㅋ’ 초성이 오는 경우
 2) ‘ㄷ·ㅌ’ 받침 아래에 ‘ㄷ·ㅌ·ㅌ’ 초성이 오는 경우

(20a)는 실제 音價가 音節末에서 ‘ㅍ’를 가지는 것들의 促音表記를 언급한 것이고, (18b)와 (18c)는 한글을 가나 문자로 표기할 때 促音이 추가되는 환경이다. 실제로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차용어 표기에 促音化가 나타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8)에서 언급하고 있는 促音化 환경은 일본어의 음성실현 제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 (21) a. 경복궁[kyɛŋbokˀkʰuŋ] キョンボククン 먹골[məkˀkʰol] 모컬 モッコル
 b. 성북[sɛŋbukˀ] ソンブク 압구정[apˀkujɛŋ] 아부크쥬온

(21a)는 音節末障礙音 /k/가 후행 子音 /k/에 의해 促音으로 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어에서 후행하는 子音의 硬音化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일한 分節音의 연속에서만 促音表記를 인정한다는 것은 促音表記로 인하여 생략된 分節音의 音價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명시된 促音表記 환경이 일본어의 음성실현 제약과 무관하다는 것은 (21b)의 예에서 명확해진다.

- (22) a. book[bɔk] ブック 성북[sɛŋbukˀ] ソンブク
 b. sex[sɛks] セックス 수색[swusekˀ] スセク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음성환경에서 영어 차용어에는 促音이 추가되는 것에 비하여 한국어 표기에서는 促音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促音化에 대한 기존의 학설은 다음과 같다.⁶⁾

- (23) 축음출현의 최소조건(CVC구조의 외래어)⁷⁾

<단모음+(t, k, p, ts, tʃ)> → <단모음+축음+(t, k, p, ts, tʃ +기생모음)>

6) 促音추가 현상에 관한 연구에는 カッケンブッシュ 寛子·大曾美恵子(1990), 小野浩司(1991), 황광길(2005)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促音挿入 현상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가능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7) 黃光吉(2005) 「외래어에서 나타나는 促音에 대한 연구」 『東洋學』第37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p.13

하지만 (23)의 조건은 促音 추가현상에 대한 최소조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單音節 단어 및 語末 환경제한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조건을 한글의 가나 문자 표기에 모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일본어에서의 차용어에 대한 음성실현재약과 다음의 제약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학설이 가졌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24) Ident-IO(F) 입력형에서 [F]의 자질을 갖는 分節音은 출력형 대응소역시 [F]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

(23)에서 단모음 뒤에 /t, k, p, ts, tʃ/가 후속할 경우 促音が 삽입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t, k, p, ts, tʃ/는 破裂·破擦音으로 이들은 조음 시 공기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closure]자질을 갖는다. 일본어에서는 근원어의 分節音이 가지는 [closure]자질을 促音추가로 구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Ident-IO_(closure)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5) /sketʃ/ ‘sketch’

| 예상 출력형 | *C[V | Max-IO | Ident-IO (closure) | Max _(codā) | Dep-IO |
|------------------|------|--------|-----------------------|-----------------------|--------|
| a. su.ke.tʃi. | | *! | | * | ** |
| ☞ b. su.ket.tʃi. | | | | | ** |

(26) /mask/ ‘mask’

| 예상 출력형 | *C[V | Max-IO | Ident-IO (closure) | Max _(codā) | Dep-IO |
|----------------|------|--------|-----------------------|-----------------------|--------|
| ☞ a. ma.su.ku. | | | | * | ** |
| b. mas.su.ku. | | | *! | | *** |

(25)는 일본어 표기에서 促音が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促音を 삽입하지 않는 형태의 후보는 Ident-IO_(closure)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탈락되었다.

(26)은 促音插入이 일어나지 않는 표기이다. (26a)는 Max_(codā)와 Dep-IO를 위반하였고, (26b)도 Ident-IO_(closure)와 Dep-IO를 위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반한 횟수가 적은 (26a)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27)과 (27)의 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약이 促音의 출현형과 비출현형 모두 무리 없이 최적형을 선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의 제약으로 (21b)를 검사해 보는 것으로 일본어에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의 최적형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27) /swsek/ ‘susek’

| 예상 출력형 | *C[V | Max-IO | Ident-IO (closure) | Max _(coda) | Dep-IO |
|-----------------|------|--------|-----------------------|-----------------------|--------|
| a. sw.se.kw. | | | *! | * | * |
| ☞ b. sw.sek.kw. | | | | | ** |

(27)은 語末에 위치하는 音節末障礙音 /k/에 대한 용례이다. (27a)는 促音が 추가되지 않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이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표기이다. 하지만 Ident-IO_(closure)와 Max_(coda)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고, 促音を 삽입한 형태인 (27b)가 최적형으로 선택됨을 알 수 있다.

대상자료에서 語尾音節末 /k/는 총 29곳에서 출현하였으며, /p/는 2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促音を 수반하지 않은 표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音節末障礙音 /p, t, k/는 促音 출현의 최소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이다. 그리고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용례를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促音を 수반하는 표기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으므로,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語末의 音節末障礙音 /p, t, k/를 가진 한글의 표기에는 促音を 수반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28) /apkucjoŋ/ ‘ap^hkuʃəŋ’

| 예상 출력형 | *C[V | Max-IO | Ident-IO (closure) | Max _(coda) | Dep-IO |
|---------------------|------|--------|-----------------------|-----------------------|--------|
| a. a.pw.kw.cjoŋ. | | | *! | * | * |
| b. ak.kw.cjoŋ. | | *! | | | |
| ☞ c. ap.pw.kw.cjoŋ. | | | | | ** |

語頭音節末에 위치한 障礙音 /p/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8)에서는 ‘압구정’을 분석해 보았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을 따르자면 ‘압구정’에는 促音が 나타나지 않는 (28a)의 입력형인 ‘アプクジョン’이 권장되나, (28a)는 Ident-IO_(closure)를 위반하여 최적형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후속 障礙音 /k/의 경음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저형의 分節音 /p/를 삭제하고 /k/를 대체한 (28b)의 표기는 보다 상위제약인 Max-IO의 위반으로 최적형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促音を 추가하여 Ident-IO_(closure)위반을 피한 (28c)가 최적형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8) 대상이 된 ‘수도권 지하철 역사명’에서는 音節末에 위치한 /t/가 존재하지 않아, 실례를 이용한 분석은 불가능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t/역시 促音を 수반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실제로 (28)의 입력형들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검색해 본 결과, (28c)가 압도적으로 높은 검색결과수치를 나타내었다.⁹⁾ 이것이 일본어모어화자들이 가진 한국어 표기에 대한 인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검색 결과의 차이는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에 입각한 표기가 그들의 요구를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音節末障礙音 /p, t, k/는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을 근거로 두고, 促音화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등,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나타나는 한국어 音節末障礙音의 일본어 표기규정은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과는 무관하게 한국어 중심으로 무척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어에서 音節末障礙音의 표기는 한자어와 영어 등, 어떤 CVC구조 언어의 차용에서도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기에 보다 자세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특수음소인 促音이 현재 외래어에서는 출현양상에 대한 완벽한 이론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자음과 같이 식자층에 의해 구축된 음성 및 표기가 존재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일본어모어화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표기가 가진 난해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외래어 표기 역시 개인의 언어수준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며, 이러한 현상은 현행 외래어 표기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또한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외래어 표기의 기능은 차용모어화자가 주어진 문자정보에서 근원어의 음성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차용 측 국가의 음운실현재약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적성이론과 대응이론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의 차용어 음운실현재약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9) 일본어의 차용어 음성실현재약등급

9) 2011년 9월 yahoo japan 검색결과

アプリケーション 13,200건, アックジョン 698,000건, アップクジョン 2,720,000건.

Peak, *Complex ≫ Coda-condition, *C]V ≫ Max-IO ≫ Ident-IO[F],
Max_(coda) ≫ Dep-IO

물론 위의 제약등급은 語中에서 促音의 출현빈도가 극히 낮다는 점과 二重母音 뒤, 혹은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에 다소 불충분한 요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위의 제약등급은 일본어에서 적절한 차용어 표기를 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표기에 대해서 최적형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위 제약등급을 한글에 대입해 보았을 때 최적형의 일본어 표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의거한 표기인 ‘수도권 지하철 역명’을 조사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글의 音節末障礙音은 일본어의 음절구조상 母音插入을 통해 開音節化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Coda-Condition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語尾音節末 /p, t, k/는 일본어에서 促音으로 실현가능한 音價이다. 따라서 母音插入에 의한 開音節化만으로는 상위제약인 Max_(coda)를 위반하기에 促音이 삽입되는 것이 일본어의 차용어표기로서 적합하다.

둘째, 語中에 위치한 音節末障礙音에 대해서는 *C]V와 Ident-IO_(closure), Max_(coda)가 주요하게 작용하여 최적형이 선택된다.

일본어의 음운실현제약에 초점을 두지 않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위의 분석결과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특히 促音 출현에 관한 환경설명이 무척 부족하여 표기법 개정의 필요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위의 제약등급으로도 促音의 추가현상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사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音價의 구성에 따라서 한 단어 내에 促音이 여러 번 나타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있을만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参考文献】

- 강옥미(1996) 「한국어 차용어 음운론에 대한 최적성이론 분석」 『국어학』 28, 국어학회. p.113-158
 _____ (2003) 『한국어음운론』. 태학사. p.1-265

- 구본석(1999) 「최적성이론에서의 영어 차용어와 모음삽입」 『음성·음운·형태 연구』 제5집 1호 한국음운론학회. p.59-77
- 국어연구소편(1998) 『국어어문규정집』, 대한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편(2002) 『교과서 편수 자료 II-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72-97
- 배석주(2001) 「국어 파열음·파찰음의 가나 문자 표기 고」 『創意力開發研究』 第5輯, 경주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 p.133-148
- 엄태수(1996) 「최적이론(Optimality Theory)에 의한 현대 국어 음운현상의 설명」 『음성·음운·형태 연구』 제2집, 한국음운론학회. p.91-116
- 이주희(2003) 「외래어입력부에 관한 연구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의 어기의 풍부성(Richness of the Base)를 중심으로-」 『돈어문학』 제17호, 돈암어문학회. p.199-233
- 黃光吉(2005) 「외래어에서 나타나는 축음에 대한 연구」 『東洋學』 第37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p.1-17
- 한선영(2001) 「최적성 이론과 어중음 삽입 현상」 『인문학연구』 第26輯,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p.111-132
- 小野浩司(1991) 「外來語としての英語の促音化について」 『言語研究』 第100輯, 日本言語學會. p.67-88
- カッケンブッシュ 寛子·大曾美恵子(1990)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6 外來語の形成とその教育』. 國立國語研究所.
- 國立國語研究所編(1990) 『外來語の形成とその教育』. 國立國語研究所.
- 田中章(2004) 「最適性理論と日本語の數詞+助數詞表現について(その1)」 『新潟經營大學紀要』 vol.10, 新潟經營大學. p.53-65
- 城田俊(1993) 『日本語の音一音聲學と音韻論一』, ひつじ書房. p.1-260
- John J, McCarthy(2009), 『최적성이론 해보기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p.1-394
- John J, McCarthy & Prince(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Beckman et al eds., Papers in Optimality Theory, Amherst:Glsa. p.249-384.
- John J, McCarthy & Prince(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p.1-59.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Technical Report #2 of the Rutgers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Rutgers University. p.1-262
- Silverman, Daniel(1992), "Multiple scansion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9: p.289-328

要 旨

本研究では、〈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による日本語の表記の問題について、表面性中心(surface-oriented)の理論である最適性理論(Optimality Theory)と対応理論(Correspondence Theory)の枠組みによる解決策について考察した。まず、日本語に借用語が受け入れられる際に用いられる最小限の音声の実現制約を次のように提案する。

‘Peak, *Complex ≫ Coda-condition, *C]V ≫ Max-IO ≫ Ident-IO[F], Max(coda) ≫ Dep-IO’

上の制約によってハングルのカタカナ表記を分析すると、以下の二つ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た。

一つ、ハングルの音節末の障害音は日本語の持つCV音節構造により、開音節化されるのが一般的である。これはCoda-Conditionの違反を避けるためである。ただし、語尾に位置する音節末の障害音/p, t, k/は日本語の語中で促音という特集音素で実現できる音価である。この場合、促音を入れずにただ開音節化した表記は促音を入れた表記に比べて上位の制約であるMax(coda)を違反することになる。従って、促音の入れた表記が日本語の借用語としての表記に適合する。

二つ、語中に位置する音節末の障害音に関しては*C]VとIdent-IO(closure), Max(coda)の制約が重要に働き、最適となる。

しかし、上記の制約でも促音が挿入される全ての現象が説明できるわけではない。特に、今回の調査資料には存在していなかったものの、音価の構成によって一単語の中で促音が何回も出現できる危険性もまた内包されている。これらの問題に関しては例外になりうるような単語を選別し、今後の研究の課題として残しておきたいと思う。

キーワード：表記、最適性理論、対応理論、国語の仮名文字表記法、音声の実現制約、促音、撥音、音節末の障害音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